

 TACSS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 도 자 료		 튼튼한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
		배포일시	2022. 12. 1(목) / 총 4매(본문2)	
담당 부서	전략사업부	담 당 자	• 총괄부문장 김성완, 전략사업부장 백재환 • ☎ (02) 6101-1605, 1611	
보 도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 개최

의료감정 최신 동향 강연 및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상해등급의 평가·체계 기준 개선 논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6개 공제조합 및 손해보험회사·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2022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를 12월 1일 서울스퀘어 베를린 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 이번 세미나는 자배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제도의 성과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공유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배상 관련 의학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업계 의료종사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보험업계와 전문의학회 간 보험의료정책 관련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주 강연자로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및 한양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를 역임했던 고용 교수가 척추손상 의료감정 평가 방향에 대한 최신동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자배원에서는 이번 세미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경상환자 진단과 관련된 객관적 의학기준을 모색하였음은 물론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상해급수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하여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 주현중 자배원장은 “2014년 자배법의 상해급수 개정 이후 의학계의 검사 및 치료기술이 발전하였음에도 현재 법규정 및 약관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치료비 발생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향후에도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자동차보험 의료 세미나 사진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보험 의료 세미나

주 제

2022년 의료전문심사제도 사업 현황 보고
척추 의료감정 평가 및 경상상해급수 상병의 의학적 고찰
경상환자 상해등급 평가체계 관련 토의

시 간 2022년 12월 1일(목) 오후1시

장 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베를린룸
(서울역 1호선 8번 출구, 4호선 10번 출구 이용)

